논문 작성 지침서

2021. 11

개신대학원대학교

목 차

I. 논문작성 지침서의 목적 ····· 3

II. 논문의 이해와 작성 준비 ····· 5
1. 논문의 이해 ····· 5
1) 논문의 개념 ····· 5
2) 논문의 특성 ····· 5
3) 논문의 종류 ····· 6
2.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 ····· 7
1) 연구 주제의 선정 ····· 7
2) 지도교수의 선정 ····· 8
3) 자료 조사와 평가 ····· 8

III. 논문 계획서 ····· 9
1. 논문계획서의 필요성 ····· 9
2. 논문계획서의 구성과 세부내용 ····· 9
1) 논문계획서의 구성 ····· 10
2) 논문계획서의 세부내용 ····· 10
3. 논문계획서의 심사 ····· 14

IV. 논문 작성 ····· 15
1. 논문의 제목 선정 ····· 15
2. 논문의 구성(아웃라인) ····· 15
3. 논문의 세부 작성방법 ····· 16
1) 서론 ····· 16
2) 본론 ····· 16
3) 결론 ····· 19
4) 참고문헌 ····· 19
5) 초록 및 Abstract ····· 20

6) 표목차 및 그림목차 ····· 20
7) 부록 ····· 20

V.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법 ····· 21
1. 각주 작성 방식 ····· 21
2. 참고문헌 작성 방식 ····· 22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의 예 ····· 23

VI. 논문 제출 및 심사 ····· 26
1. 지도교수의 제출 승인 ····· 26
2. 1차 심사 ····· 26
3. 2차 심사: 구술심사(박사과정) ····· 27
4. 구술심사 후 절차 ····· 28
5. 논문 관련 일정 ····· 29

VII. 연구윤리 ····· 30
1. 위조, 변조, 표절 ····· 30
2. 표절 검사 ····· 31

VIII. 부록
1. 논문계획서 샘플 ····· 32
2. 학위논문 작성요령 ····· 44
3. 논문 서식(template, 별도 파일) ····· 49

I. 논문작성 지침서의 목적

본 지침서는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위논문의 표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작성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개신대학원대학교는 신학은 물론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코칭학, 농업숲치유학 등 다양한 전공을 아우르는 학교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영역에 적합한 표준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학만 하더라도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 세부 전공에 따라 논문의 형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논문작성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본 지침서에서는 다양한 전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논문의 구성, 주요 특징과 고려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더불어 가능한 한 각 전공의 특성에 맞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논문작성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하려고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전공이라 할지라도 석사, 박사, 전문학위 등 학위의 종류에 따라 목적하고 요구하는 바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토플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한 분야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과 논문을 잘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논문 작성에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로 논문에 대한 이해와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서는 처음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A에서 Z까지 상세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지침서는 논문을 써야하는 학생들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을 제공할 것이다.

① “논문이란 무엇인가?”
②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논문계획서는 각각 어떻게 작성하는가?”
③ “논문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④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논문은 어떻게 다른가?”
⑤ “논문의 전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⑥ “논문의 각 항목(서론, 본론, 결론, 초록 등)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작성하는가?”
⑦ “논문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제목, 장제목, 소제목, 본문(문단), 각주, 참고문헌, 표지, 목차, 도표, 그림 등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⑧ “표절은 무엇인가? 어떻게 표절을 피할 수 있는가?”

⑨ “구술심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⑩ “논문심사 통과 후 제본 및 최종 제출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른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본 논문작성 지침서는 또한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위논문의 형식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논문작성 학생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표지, 논문 속표지, 인준서, 초록, 외국어초록(Abstract), 참고문헌, 부록의 예시를 제공할 것이다.

Ⅱ. 논문의 이해와 작성 준비

1. 논문의 이해

1) 논문의 개념

논문(論文, dissertation, thesis)이란 어느 한 주제를 학술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논리적인 전개와 구성의 바탕위에서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논리적인 글쓰기로 담아낸 결과물이다. 학문을 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물음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광의의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문은 이런 연구 중에서도 전공분야의 특정한 한 문제(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다룸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해답 혹은 그 주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발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매우 특정한 형식의 글을 가리킨다.

논문의 성격은 문헌연구, 면담과 사례조사, 관찰을 통한 질적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한 양적연구 등 자료의 조사 및 연구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갖게 된다. 다만, 어떤 문제의식이나 연구주제가 연구자 자신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경우는 논문으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논문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있는 질문에 답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논문은 교과서가 아니다. 간혹 논문이 아니라 교과서를 써서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다. 즉,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하고 논문이라고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논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오류다. 그러므로 논문을 쓰기에 앞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의 특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 논문의 특성

논문의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논문은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명료성: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연구 배경과 필요성, 작성 목적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독창성: 논문의 내용이 단순히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거나 짜깁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술적이려면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같은 소재나 주제라도 연구방법, 해석, 모델이나 대안제시 등 창의적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일관성: 논문의 전개 및 내용에 있어서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객관성: 논문의 주장과 연구결과는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정확성: 연구자의 연구내용과 주장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주요 개념이나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술해야 한다. 또한 논문에 인용하는 통계자료, 인용하는 책의 제목이나 이름 등을 확인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 윤리성: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고의나 실수로 표절에 휘말리지 않도록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종류

■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학위 취득을 위하여 작성하는 논문을 말한다. 학위의 종류에 따라 대학졸업논문,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교의 경우 석사학위논문은 선택사항으로 논문대신 학점을 더 이수함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논문을 작성하려면 우선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 등 필요한 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 학술논문(연구논문)

학술논문은 통상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논문을 말한다. 신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의 경우 학술논문은 보통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한다. 학술논문은 3명 정도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하여 게

재여부가 결정된다. 학술논문은 학위논문보다 분량이 적고 공동연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2.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

1) 연구 주제의 선정

논문을 쓰려면 먼저 원하는 주제를 찾아야 한다.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논문 작성은 외롭고 길고 고단한 작업이다. 그래서 주제 선정은 중요하다.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가슴이 뜨거운 주제를 찾아야 한다. 섣불리 쉬울 것 같은 주제보다는 정말 관심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주제를 찾는 것이 좋다. 논문을 쓰다보면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지만 한 줄도 못 쓰고 하루를 마쳐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쉬울 줄 알았던 주제가 막상 논문을 작성하다보니 막힌다면 그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쉬운 주제란 없다. 논문 작성의 어려움은 어떤 주제에서나 닥치게 마련이지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는 극복할 힘을 준다.

둘째, 자료가 많은 주제가 좋다. 논문은 자료 싸움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논문에서 저자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자료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자료 없는 주장, 근거 없는 논증은 공허한 메아리요 학술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료가 많다는 것은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의 교회론'이 관심 있는 주제이고 자료도 충분하지만 대부분 라틴어로 써졌다고 가정해보자. 본인이 라틴어를 할 수 없다면 그 많은 자료들은 무용지물이 된다. 또 어떤 자료는 내가 다룰 능력이 되지만, 구하기가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자료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자료의 양이 아니라 연구자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자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셋째, 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 종종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지도교수가 바뀌어서 고생했다는 얘길 듣게 된다. 연구의 주체는 자신이지만 지도교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지도교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주제는 지도교수가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지도교수에게 생소한 주제라면 적절한 지도를 받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다.

또 어떤 주제는 지도교수가 반대하는 주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주제를 바꾸든 아니면 적합한 지도교수를 찾아 지도를 부탁하고 허락을 얻어야 한다.

넷째, 공헌 가능한 가치 있는 주제여야 한다. 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작성한 논문이 겨우 자신의 만족으로 끝나고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헌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논문이 완성될 경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그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신에겐 아무리 가슴 뛰는 주제여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라면, 논문이 완성되어도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논문이 완성되면 어떤 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는 자신의 전공뿐 아니라 연구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논문을 써야 하는 학생은 관심 있는 연구주제를 예비로 선정하여 희망하는 교수와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도교수는 전공과 학생이 원하는 교수를 우선으로 하되, 학교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자료 조사와 평가

논문계획서 작성 전의 자료 조사와 수집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가 논문으로 다룰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자료의 양은 충분한지 확인하는 예비적인 성격을 띤다. 자료를 조사함에 있어서 전공과목 수업에서 다루었던 교재를 먼저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해당 주제에 관한 검증된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자료조사는 최근 학술논문을 모두 조사한다. 책은 저술이나 번역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학술논문이 해당 주제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경향이나 연구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설사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공 교수님의 조언을 참고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논문계획서 작성 전의 자료 수집은 반드시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수집한 자료는 예비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것은 제외하고 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논문계획서에 참고문헌으로 활용한다.

Ⅲ. 논문계획서

1. 논문계획서의 필요성

논문계획서는 일종의 설계도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은 논문계획서의 분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논문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이다.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만나고 난관에 부닥치는 등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이 때 명확한 논문계획서가 있다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논문계획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논문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시켜준다. 그러므로 짧더라도 논문의 설계도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논문계획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논문계획서의 구성과 세부내용

논문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나 학위의 종류 및 학교의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논문계획서에 필요한 요소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박사논문에서는 아래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일부 요소를 생략할 수 있다. 석사 논문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서 생략이 가능한데, 생략이 가능한 것은 괄호로 처리하였다.

또한 논문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아래 요소들은 포함하더라도 각각 모두 별도의 제목으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경/문제제기, 선행연구, 연구의 중요성 등이 “연구의 필요성”과 같은 포괄적인 제목아래 포함시킬 수 있다.

1) 논문계획서의 구성

논문계획서의 구성은 다음의 예를 참조하라.

[논문계획서 구성 예1]

1. 논문 제목
2. 문제제기(연구의 필요성, 논지 포함)
3. 연구 목적
4. 연구방법(연구대상 포함)
5. 예상 목차
6. 참고문헌

[논문계획서 구성 예2]

1. 논문 제목
2. 문제제기(논지 포함)
3. 선행연구
4. 연구 목적
5. 연구 질문
6. 연구방법(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포함)
7. 용어의 정의(필요시)
8. 예상 목차
9. 참고문헌

* 논문계획서의 분량은 5페이지 내외로 한다.
* 성경주해과정의 논문계획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진행한다.
* 항목을 따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논문계획서에는 “논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필요에 따라 다음 페이지의 예와 같이 “선행연구(연구사),” “연구 질문,” “용어의 정의”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실제 논문계획서 예시는 부록3 참조.

2) 논문계획서의 세부내용

논문계획서의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1) **문제제기**

문제제기는 논문의 연구 주제가 대두된 배경 및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통해 연구자가 왜 논문을 써야만 하는지, 즉 무엇이 문제이고 왜 연구가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논문은 연구를 통해 일정한 학술적, 사회적, 교회적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려면 분명한 문제의식 혹은 주제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논문계획서에서 선행연구를 별도로 다루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의 필요성에서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회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위해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논지

논문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 논지(thesis statement)다. 논지란 저자의 주장이자 논문 전체의 핵심 요지라 할 수 있다. 논지는 논문계획서 혹은 논문의 서론에서 별도의 번호나 제목을 붙여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여진 문장이어야 한다. 논지는 논문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논문 전체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논문에 있어서 논지는 꼭 필요하지만, 보통 한 문장으로 표현하므로 문맥의 흐름에 맞게 문제제기 혹은 연구 목적에 덧붙여 작성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생략 가능)

선행연구는 논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이전에 동일한 주제에 관해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고 요약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주제가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떻게 다루어졌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이미 결론이 내려진 주제에 대해 논문을 쓰는 헛수고를 막고, 또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나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도교수(들)에게는 학생이 논문을 쓸 만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는지를 가늠하도록 돕는다.

(4) **연구목적**

논문계획서에서 목적이란 논문 작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논문의 목적에는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이나 대안 제시, 필요한 모델 제시, 이론 도출, 새로운 연구방법 제시 등 다양하다.

(5) 연구 질문(생략 가능)

연구질문은 논지와 연구목적을 토대로 연구를 통해 답하고자 하는 질문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연구질문은 주(主)질문과 보조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소수의 질문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6) 연구 방법(대상, 범위, 제한사항 포함; 생략 가능)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 한다. 신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 연구는 연구자가 주로 연구주제에 관련한 도서, 학술 논문 및 기타 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일명 도서관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칼빈의 교회론에 대해 연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칼빈의 원저작이 1차 자료가 되고, 다른 학자들이 칼빈에 대해서 연구한 도서나 논문은 2차 자료가 된다. 한편 실천신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은 문헌연구 외에도 양적연구나 질적연구를 통한 연구가 자주 이루어진다. 양적연구란 통계적, 수학적, 계산적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란 양적으로 쉽게 계량화되지 않는 영역이나 주제, 대상의 질적인 부분에 관해 연구하는 것으로 참여적 관찰과 인터뷰 등의 기법이 이에 속한다.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은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 이미 존재하고 널리 통용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이나 사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작성한다. 석사 논문에서는 대체로 생략되나 박사논문의 경우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연구하는 것이라면 논문계획서에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범위는 논문의 작성 기간과 연구자의 접근 가능성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지리적으로 한국, 서울,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등 지리적인 것과, 19세기 혹은 1970-2000년까지 등과 같은 시간적인 범위, 그리고 20세 이상 여성 그리스도인 혹은 18세 미만 불신자 중고등학생 등 대상의 범위 등 다양한 범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사항은 연구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연구범위에 서울지역 남녀 중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했어도 쌍둥이는 제외한다든지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외국인 학생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제한사항에 명시함으로써 연구를 보다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다.

(7) 용어의 정의(생략 가능)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핵심적이고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용어의 경우 미리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8) 예상 목차

논문계획서에서 목차란 저자가 생각하는 논문의 예상 목차를 말한다. 저자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연구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계획한 것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목차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선은 심사숙고하여 예상 목차를 제시하는 것이 저자 본인에게도 그리고 지도교수에게도 도움이 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아직 논문을 작성하기 전이므로 완성된 논문에 포함될 참고문헌과는 차이가 있다. 논문계획서에 참고문헌을 쓰는 목적은 앞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논문 저자가 해당되는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책이 책을 안내한다는 말이 있다. 좋은 자료는 단순히 어떤 주장이나 정보만을 나열하지 않고, 그 주장이나 정보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참고문헌에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관한 최근의 핵심적인 논문이나 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자료를 알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일종의 좋은 길잡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지도교수는 참고문헌을 통해 학생이 해당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논문을 쓸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핵심적인 자료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 논문계획서의 심사

논문계획서의 작성을 마치면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지도는 논문의 주제와 제목을 정하고 논문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학생은 논문계획서를 작성하지만,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지도교수의 지도와 검토를 받아야 한다.

논문계획서는 논문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 심사는 구술심사는 없고, 내용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논문계획서의 심사결과는 '통과,' '수정 후 통과,' '불합격'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경우 수정 후 통과를 받는데,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지적받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계획서가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간혹 논문계획서가 통과되기 전에 학생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헌연구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설문조사나 인터뷰, 사례연구 등은 시작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논문계획서를 먼저 승인받은 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인 경우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지도를 받도록 한다.

Ⅳ. 논문 작성

1. 논문의 제목 선정

제목은 논문의 얼굴로 연구주제를 잘 반영해야 한다. 논문 제목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논문의 주제와 핵심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부제를 활용하여 주제를 한정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도 있다. 논문의 제목은 핵심어(keywords)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구방법이 중요한 경우 그것이 표현되거나 암시되도록 제목에 포함한다.

2. 논문의 구성(아웃라인)

논문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의 [논문 구성의 예]와 같다.

[논문 구성의 예]

초록
감사의 글(생략 가능)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필요시)

I. 서론
II. 본론(본론의 장별 제목은 자유롭게)
III.
IV.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필요시)

3. 논문의 세부 작성방법

1) 서론

서론에는 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제한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논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중요한 용어의 정의와 연구 질문을 포함하면 좋다.

서론의 내용은 논문계획서의 내용과 많이 중복되므로 논문계획서를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논문계획서는 주제를 연구하고 결과를 얻기 전에 작성한 것이므로 논문의 연구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서론의 형식을 갖추도록 한다.

서론은 비록 논문의 처음에 위치하지만,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논문의 결론과 같은 맥락을 같이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대략적인 초안을 작성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결론까지 내용 작성을 마친 후 마지막에 서론을 마무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일반적이다.

2) 본론

논문은 한 번에 완성된 객체가 나오는 출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아가는 건축에 더 가깝다. 훌륭한 건축물을 완성하려면 빈틈없는 설계도(논문계획서)가 필요하고, 좋은 건축자재에 해당하는 문장과 문단이 모여 완성된 논문이 된다. 즉 각각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고, 이해하기 쉬우면, 명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문단이 논리적인 순서로 합쳐질 때 좋은 논문을 기대할 수 있다.

(1) 좋은 문단의 4 요소

논문을 작성하려면 결국 좋은 문단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네 가지 요소(완결성, 통일성, 순차성, 연결성)를 주의하여 작성하면 효과적이다.

■ 통일성

각 문단은 하나의 주제(one idea)만을 다루어야 한다. 한 문단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되면 그 문단은 초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 문단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누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긴 했으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

하기 힘든 것과 같다. 이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에 분명한 하나의 주제 문장을 써주는 것이 필요하고 크게 도움이 된다. (첨부 “순종을 가르쳐 주옵소서” 참조)

■ **완결성**

하나의 문단은 그 하나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단은 하나의 생각덩어리와 같다. 생각의 덩어리가 나눠지면 그 문단에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논문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을 갖추려면 각 문단이 말하려는 한 가지(one thing)가 그 문단 안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다.

■ **순차성**

각 문단은 논리적인 순서를 갖추어야 한다. 논리적인 순서를 갖지 않은 채 서술된 문단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논리적인 순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술하거나, 둘째, 장소에 따라 기술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주장을 말하고 그 증거를 나열하는 방법과, 넷째, 근거가 되는 예들을 나열한 뒤 주장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다섯째,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순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연결성**

각 문단은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장 간의 연결성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저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주제만을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장기간 연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자신도 모르게 필요한 문장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독자는 문장들이 각각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해하기 힘들고, 뜬금없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는 B와 연관된다. B는 C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A는 C와 연관이 있다.”고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만일 중간의 문장(B는 C와 관련이 있다)이 생략하고 “A는 B와 연관된다. 그러므로 A는 C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독자는 어떻게 느끼겠는가.

위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순차성과 연결성은 논문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문단 안에서 뿐만 아니라 문단과 문단 간에 순차성을 갖출 때 논문은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논문이 된다. 연결성도 마찬가지다. 문단과 문단이 하나의 주제를 다루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문단과 문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원숭이 엉

덩이는 빨개"란 노래를 기억하는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아마 외국인이 아니라면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가 이 노래를 외울 것이다. 생각해보라. 누가 이것을 외우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아무도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또 오랫동안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요소가 분명한 연결고리로 이어져있기 때문이다. 논문이 되려면 구슬을 꿰듯 각 문장과 문단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주제문장의 중요성

앞에서 문단 작성의 고려사항 중 통일성을 언급하면서 주제문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문장은 문단의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으로, 좋은 문단을 작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다. 글의 중심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문단은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양괄식(혹은 쌍괄식)으로 나뉜다. 두괄식은 주제문장이 문단의 맨 앞에 위치하는 것이며, 미괄식은 문단의 맨 마지막에, 중괄식은 문단의 중앙에, 그리고 양괄식은 문단의 앞고 뒤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만, 논문작성에 권장하는 방법은 두괄식 문단으로 주제문장을 문단의 첫 문장에 쓰는 것이다. 다음은 "이삭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한 학생이 쓴 글 중 한 문단이다.

> 창세기 2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창 25:21, 개역개정판). 이 성경 구절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면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는 20년 만에 후사를 얻게 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조차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방인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고자 하지 않았는가? 또 99세에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상기시키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창 17:18, 개역개정판)라고 말하는 불신앙을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비해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은 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은 이삭의 믿음은 결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부족하다 말할 수 없을 것이

다.

이 문단의 핵심은 이삭의 믿음이 결코 아브라함이나 후대 족장들의 믿음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 문단은 문단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기 전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만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조금만 다듬어져 처음으로 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3) 결론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간단히 압축적으로 요약하되,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연구자의 주장인 논지를 재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론의 중요한 요소는 논지의 재진술이라 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의 요약과 연구결과를 통해 서론에서 제시한 논문의 목적이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연구자의 주장인 논지를 재확인하고 재진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 논문의 공헌과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다. 결론을 작성할 때 서론이나 본론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도 베껴 쓰는 것을 지양하되 핵심어(keywords)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변형시키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연구자의 가설이나 주장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때 연구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나는 서론 부분을 결론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논문을 시작할 때 연구자가 설정한 가정 혹은 주장과 다른 결과를 얻었더라도 연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한 중요한 학문적 공헌을 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도 중요한 학문적 발견이자 성취이므로 억지로 결과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연구자는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발견이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결론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후속 연구가 필요한지를 기술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에 또 다른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다.

4)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문자 그대로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고한 문헌을 기록하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주로 기재하는 것이다. 한 주제를 깊이 연구하려면 수많은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참고문헌에 그런 모든 자료를 기록한다면 참고문헌 목록이 너무 방대하고 변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5) 초록 및 Abstract

초록은 논문의 핵심만을 간추린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초록에는 연구의 주요한 사항이 간결하고 명료하게 압축적으로 담겨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초록에는 주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와 시사점이 담겨 있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초록의 분량은 2페이지이내로 한다. 초록 작성 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 간결하되 연구의 주요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핵심어(keywords)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초록 페이지에는 별도로 이름이나 논문제목을 쓰지 않는다. 초록의 내용 하단에는 핵심어를 5-6개 기재한다.

Abstract는 영어로 작성한 초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Abstract를 작성하는 목적이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영어로 제목, 이름, 전공, 학교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Abstract에 사용되는 표현이나 단어 중 학술용어는 일반번역과 다르므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용 외에도 철자나 문법적인 오류가 없도록 원어민이나 영어에 능통한 사람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의 내용 하단에는 keywords(핵심어)를 5-6개 기재한다.

성경주해전공 논문은 영문 Abstract(영문 제목, keywords 포함)를 쓰지 않는다.

6)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시)

표나 그림의 수가 4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각의 목차를 만들어야 한다. 표와 그림 목차의 표기는 [표1], [표2], [그림1], [그림2]와 같이 대괄호 안에 표 혹은 그림의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붙여 표기한다.

본문에서 표의 제목은 표 위 중앙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에 작성한다.

7) 부록(필요시)

필요한 경우 연구자는 논문에 부록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한 경우 설문지, 인터뷰 질문을 부록에 실어야 한다. 그 외에도 논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본문이나 각주에 자료를 그대로 삽입하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 부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V.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법

각주와 참고문헌은 참고/인용한 원자료를 보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자료의 출처를 알려준다는 대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각주와 참고문헌이 표기법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같은 자료를 어떻게 다르게 표기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나란히 예를 제공할 것이다.

1. 각주 작성 방식

개신대학원대학교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은 각주 표기 방식을 따라야 한다.

1) 모든 논문과 간행물에 실린 글의 제목은 한글 외국어 구분 없이 큰따옴표(“”)로 표기한다.

2) 한글 학술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홑낫표(「 」)로 표기한다.

3) 한글 단행본 제목은 겹낫표(『 』)로 표기한다.

4) 외국어 단행본 및 간행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5) 외국어 저술의 제목은 중간에 나오는 관사와 전치사,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글자를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한다.

6) 같은 논문이나 책을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Ibid., op. cit.,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저자명, 제목, 페이지만 표기한다. 영어 이름의 경우 성만 표기하고, 부제목도 생략한다. ([편서]의 각주 반복 예 참조)

7) 인용부호와 쉼표를 함께 표기할 경우 쉼표를 마침 인용부호 안쪽에 오게 한다. 바른 예) “설교의 시점문제,” 틀린 예) “설교의 시점문제”,

8) 원문 각주표기하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실제로 참고자료 각주표기 끝에 재인용이라고 붙인다. 영문자료의 경우 원문 각주표기 후 "quoted in"에 이어서 실제 참고자료 각주표기

9) 역자명은 제목 뒤 괄호 안 출판지명 앞에 넣고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번역서] 각주 예 참조)

10) 저자가 1~3 명인 경우 순서대로 모든 저자를 표시하고, 3명을 초과하면 첫 저자만 쓰고 뒤에 ‘외’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11) 페이지는 p.나 pp. 또는 ‘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만 표기한다.

12) 책 및 논문이 부제목이 있을 경우 제목 다음에 콜론(:)을 찍고 부제목을 쓴다.

13) 웹사이트 자료는 불가피한 경우만 인용하되, 한국어는 “글 제목,” 사이트명,

####년##월##일 수정, ####년##월##일 접속, URL. 영어는 “글 제목,” 사이트명, last modified 월 일, 연도, accessed 월 일, 연도, URL.

14)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들은 Chicago Style에 준해서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2. 참고문헌 작성 방식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에만 한하며 결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각주에 인용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히 살펴야 한다.

1) 참고문헌에 기재하는 자료는 논문, 단행본 등 자료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다.

2) 한글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번역서를, 마지막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한다.

3) 한글 자료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번역서와 외국어 자료의 경우는 A, B, C 순으로 정리한다.

4) 영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sur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개인 이름(given name)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5) 영문 저자 이름이 다수인 경우 첫 번째 저자의 이름만 위 5)의 경우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름들은 통상적 순서 곧 이름-성의 순서로 기재한다(아래 [복수의 저자/역자 표기]의 예를 보라).

6)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과 저술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한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7) 동일 저자의 복수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 두 번째 자료부터 이름 대신에 한글 세 글자(스페이스 6번) 길이의 밑줄과 마침표(_____.)로 표기한다. 그어 동일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쓰인 것부터 먼저 배치한다.

8) 단행본은 끝에 페이지를 기록하지 않고,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을 인용한 경우 끝부분에 인용한 글(논문) 전체의 페이지 수를 기재한다(아래 [학술지, 정기간행물 자료] 예 참조).

9) 참고문헌의 내용이 두 줄 이상을 차지할 경우 둘째 줄부터 일곱 칸 들여쓰기 한다.

10)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들은 Chicago Style에 준하여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의 예

아래 예시에서 “각)”은 각주를 “반복)”은 앞에서 각주 처리한 자료를 다시 각주로 처리하는 경우를, “참)”은 참고문헌을 가리킨다.

1) [단행본]

각) 홍길동,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123.
반복) 홍길동,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 320.
참) 홍길동.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각) Robert Horton Gundry,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2), 123.
반복) Gundry, Matthew, 133.
참) Gundry, Robert Horton. *Matthew: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2.

2) [번역서] 외국 저자명은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두 번째 각주부터는 성(last name)만을 표기한다.

각)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홍병룡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21.
반복)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25.
참) Green, Michael.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홍병룡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3) [학술지, 정기간행물 자료]

각) 손석태, “입양식과 결혼식으로서의 시내 산 언약,” 「개신논집」 21(2021), 20.
반복) 손석태, “입양식과 결혼식으로서의 시내 산 언약,” 22.
참) 손석태. “입양식과 결혼식으로서의 시내 산 언약.” 「개신논집」 21(2021): 5-32.
각) 강대훈,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개,” 『그 말씀』 (2021. 7), 94.
참) 강대훈.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개.” 『그 말씀』 (2021. 7): 92-104.

4) [편서] 편집/편저한 단행본의 경우 저자 위치에 편집자의 이름을 쓴다.

각) Darrell L. Guder 편,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35.

반복) Guder 편, 『선교적 교회』, 39.

참) Guder, Darrell L. 편.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5) [학위논문]

각) 소강석, “신도시에서의 교회개척과 성장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 Knox Theological Seminary, 1999), 25-36.

참) 소강석. “신도시에서의 교회개척과 성장에 관한 연구.” 목회학박사 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 Knox Theological Seminary, 1999.

6) [재인용]

예) 황인종, “복음주의의 기원,” 『신학』 34(2009), 35; 백인종, “복음주의의 방향,” 『신학과 성경』 (서울: 성경출판사, 2000), 243에서 재인용.

예) Walter C. Kaise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234. quoted in J.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Edinburgh: T & T Clark, 1998), 345.

7) [복수의 저자/역자 표기]

각) 조성돈 외,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25.

참) 조성돈 외.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각)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101.

참) 김영하, 김철수, 김영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서울: 문학동네, 1996.

각) Robert Banks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121.

반복)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130.

참) Banks, Robert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8) [인터넷 자료]

각) 이민정보과,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1월호]” (2021년03월04일 입

력), 35,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6, (2021년11월15일 접속).

참) 이민정보과.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1월호].” 2021년03월04일 입력.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6. 2021년11월15일 접속.

각) 전병선, “환자들 영성 보듬는 원목 70%가 생활고… 의료인들이 돕자,”「국민일보」 (2021년11월12일 입력),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7387&code=23111650&sid1=ser (2021년11월15일 접속).

참) * 간단한 기사는 참고문헌에서 생략 가능

9)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제목은 원어제목 뒤에 한글번역을 대괄호([ ]) 안에 기재한다.

각) Antoine de Saint-Exupéry,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 (Paris: Gallimard, 1943), 25.

참) de Saint-Exupéry, Antoine. *Le Petit Prince* [어린 왕자]. Paris: Gallimard, 1943.

각) Д. Мөнхцэцэг, XYYхдийн хөгжил ба сэтгэлзүйн зөвлөгөө [유아발달과 상담],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9), 25.

참) Д. Мөнхцэцэг. XYYхдийн хөгжил ба сэтгэлзүйн зөвлөгөө [유아발달과 상담]. Улаанбаатар: Мөнхийн Үсэг, 2019.

10) [동일저자 참고문헌 처리]

참) 김광채. “아우구스틴의 생애와 정의관.”「광신학보」26 (1989): 20-25.

_____. “이그나티우스.”「큐티와 만나」1992년 6월호: 144-45.

참) Vanhoozer, Kevin J. *Remythologizing Theology: Divine Action, Passion, and Authorship.*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_____.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the Bible, the Reader, and the Morality of Literary Knowledge*.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8.

Ⅵ. 논문 제출 및 심사

각 학생은 논문 통과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논문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구술심사로 나뉜다. 이 과정을 통과하기까지 세부적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의 제출 승인

학생은 논문계획서에 작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학생 자신이 논문 작성을 마쳤더라도 지도교수가 그 논문이 심사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허락할 때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 1차 심사

지도교수의 허락과 사서의 검토가 끝나면 학생은 교학처에 석사논문은 3부, 박사논문은 5부를 링제본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되는데, 석사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3명, 박사논문은 5명의 심사위원의 1차 심사를 받는다.

석사논문은 구술심사는 없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합격,” “조건부 합격(conditional pass),” "불합격(non-pass)"으로 나뉜다. 합격은 수정 없이 논문이 통과된 것을 가리킨다. 조건부 합격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취합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한다. 만일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이 충돌하거나 수정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 이를 조율하고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지도교수와 학생에게 전달한다. 학생은 지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포스트잇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이 잘 수정되었는지 확인 후 승인여부를 심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모든 심사위원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학교에 수정한 논문(파일과 제본)을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박사논문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구술심사 받게 된다. 박사논문은 1차 심사결과가 조건부합격이라 하더라도 수정사항 통지 없이 2차 구술심사를 진행한다. 수정사항은 2차 구술심사 후 종합하여 학생에게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지도교수: 지도, ***결정***, 내용 승인
심사위원: 검토, ***제안***, 내용 승인

3. 2차 심사: 구술심사(박사논문)

1) 구술심사 개요

학생이 제출한 박사논문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교학처는 심사위원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구술심사 일시를 정하고 1주일 전에 학생과 심사위원들에게 공지한다. 구술심사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팬데믹이나 해외 체류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구술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90분 전후가 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은 구술심사를 위해 10분 내외의 논문 요약발표를 준비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요약발표를 위해 PPT 혹은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구술심사 절차

구술심사 절차와 세부내용 및 소요시간은 대략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구술심사의 절차 및 세부내용

구분 (소요시간)	세부내용
1. 소개 (약 10분)	- 인사 - 구술심사 진행절차 소개(심사위원장) - 기도
2. 논문 요약 발표 (약 10분)	- 논문 주제 선택 이유 - 연구 목적과 논지 - 연구 방법 -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 결과
3. 심사 (45-75분)	- 심사위원장이 각 심사위원이 고르게 질문할 수 있도록 전체 진행을 함 - 질문자 순서는 지도교수가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심사위원들 순으로 진행함
4. 심사위원 회의 (약 10분)	- 학생은 다른 방에서 기다리도록 함 - 심사결과는 크게 세 가지(합격, 조건부합격, 불합격)으로 나뉘며, 조건부합격은 다시 소폭 수정(minor revisions)과 대폭 수정(major revisions)로 나뉜다. - 소폭 수정의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만으로 수정 및 마무리가 가능하다. 대폭 수정의 경우는 다시 심사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심사결과 발표	- 지도교수는 학생을 다시 들어오도록 부른다. -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절차를 안내한다.

* 만일 학생이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구술심사 후 절차

박사논문의 심사결과는 “합격,” “조건부 합격(conditional pass)," "불합격(non-pass)"으로 나뉜다.

합격은 수정 없이 논문이 통과된 것을 가리킨다.

조건부 합격은 심사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취합하여 심사위원장이 지도교수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학생은 이 내용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한다. 학생은 지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포스트잇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다시 제

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이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이 잘 수정되었는지 확인 후 승인여부를 심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모든 심사위원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학교에 수정한 논문(파일과 제본)을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5. 논문 관련 일정

순서	내용	기한	비고
1	논문 제목 제출	개강 후 2주차까지	학교 양식
2	논문계획서 제출	준비되는 대로	
3	논문계획서 심사	논문계획서 제출 후 2주 이내	
4	논문 작성	논문 계획서 통과 후	
5	심사용 논문 제출	개강 후 9주차 화요일까지	
6	1차 심사	제출 후 3주 이내	석사논문은 1차 심사만
7	2차 심사: 구술심사	학기 12주차 이내	12주차 이후 심사 통과는 다음 학기에 졸업
8	논문 수정	심사 후 1개월 이내	
9	최종 수정 논문 제출	1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7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7월 제출은 8월 졸업
10	“논문수정확인서” 제출	상동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제출함
11	논문인쇄승낙		수정확인이 완료되면 지도교수에게 “논문인쇄승낙서”를 받아 인쇄할 수 있음
12	졸업사정	1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7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13	제본된 논문 및 파일 제출	학위수여일 2주 전까지	논문 및 파일을 사서에게 제출함
14	학위수여식		

* 위 스케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사일정 참조.**

Ⅶ. 연구윤리

논문은 학생의 학위취득이라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학문 분야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원칙이나 행동양식”으로 정의한다.

연구윤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하나는 연구 대상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로 학문적 양심을 지키면서 다른 연구자와 연구 공동체 및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내용을 토대로 논문 작성에서 발생하기 쉬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위조, 변조, 표절

학생은 논문 작성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변조"는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셋째,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피해야 한다.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없어야 한다.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한다.
5)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직접인용을 명확히 나타내지 않는 것도 표절에 해당

한다.

6) 출처를 밝히고, 직접인용을 바르게 표기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직접인용은 피해야 한다.

2. 표절 검사

학생은 스스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되,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카피킬러(copykiller.co.kr)에서 논문 유사도를 검사하여 검사결과지와 함께 심사용 논문(파일과 링제본)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1]논문계획서 샘플

논문계획서

제목: 국내 다문화 목회의 유형 연구

2018년 6월 24일

개신대학원대학교
선교학전공 철학박사과정
○ ○ ○

1. 논문의 제목

한글명 : 국내 다문화 목회의 유형 연구
영문명 : A Study on the Types of Multicultural Ministry in Korea

2. 문제 제기

21세기를 가리켜 '글로벌 시대(global age)'라고 한다. 그 만큼 각 나라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이며,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빈번한 이주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 3D[1] 업종을 기피하는 한국 노동인력을 대신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확대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증가로 한국사회에 외국인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다. 법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2] 이는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4% 수준이다. 2007년 100만 명 시대에서 10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국내 이주민 노동자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략 80만 명이 넘고, 다문화 가족 자녀는 22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 귀화자가 약 15만 명, 외국인 유학생은 14만 명으로 증거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난민이 12,000여명, 북한이탈주민이 약 3만 명이 있다.

이러한 이주의 결과로 한국은 다종교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이슬람과 관련하여 전국 15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운영 중이며, 임시 예배소는 60여개, 이슬람 센터는 4개가 있다. 특히 국내거주 외국인 이주민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10/40 지역의 미전도 종족이 대부분이다.[3]

이처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4]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인종/민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내에서 그들에 대해 어떠한 접근을 해 나가야 할지는 국가와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타문화권, 타종교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 앞에 한국교회가 다민족 복음화를 향해 진지한 접근을 해나가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3. 논지 및 목적

본 논문은 다문화시대에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다민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과 대한민국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문화 목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대**

---

1) Dirty, Difficult, Dangerous.

2)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18년 4월호, 2.

3) 김병문, 「고신 이주민 세계선교포럼 자료집」, (대전: 고신총회세계선교회, 2017), 136.

4) 사회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한 나라에 체류하는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비율이 2%를 넘어서면 다문화사회라고 명하고, 5%를 넘으면 다인종, 다민족 사회라고 지칭을 한다고 말한다.

적 선교 사명인 것이다.

특히 다문화시대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목회에 대한 연구와 실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다문화 목회에 대해 진행된 연구와 조사가 부분별, 기관별,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을 보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마음만 있지, 어떻게 다문화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먼저다문화 목회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각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발전적 제안을 함으로써 다문화 목회를 이미 하고 있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려는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선행연구

현재 국내 다문화 목회와 관련한 도서와 논문은 매우 제한적이다.[5] 현재 나와 있는 논문들의 연구 방향을 볼 때,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적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논문[6]이 50% 정도, 이주민 목회와 관련하여 지역교회의 역할에 대한 논문[7]이 30%,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한 논문[8]이 15%, 신학과 기타

---

5) '이주민 사역(선교), 다민족 사역(선교), 다문화 목회, 북한 이(탈)주민 사역(선교)' 등과 같은 키워드로 한국교육학술원 제공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본 연구와 연관이 있는 학위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26개, 석사학위논문 53개, 국내 학술지 논문은 20개 정도로 100개가 갓 넘는 정도의 논문이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018년 6월 10일 현재.

6)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 이주민선교의 방향과 과제" (박사학위논문; 안양: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김성민, "한국 교회의 NGO를 통한 다문화 이주민 선교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군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최신일, "한국교회의 이주민선교 실태 및 개선 방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아산: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5). 정현곤,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선교적 접근 연구: 다중적인 정체성을 품는 신적 포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5). 황기덕, "선교적 교회론에 따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갱신 연구 - 시드니 동산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전단독박사과정, 2017). 김춘희, "제자도를 통한 이주민 선교 연구: 명성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조현진, "한국교회의 위기분석과 다문화 선교 전략 연구: 전문인 선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6). 김조훈, "한국교회 이주민 사역의 문제와 선교적 대안 제시" (석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8).

7) 최춘식, "다문화 목회사역 전략과 정책에 대한 연구: 기독교한국침례회 국내선교회 사역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9). 민경휘, "하리교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목회 패러다임 고찰" (박사학위논문; 아산: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1). 최권용,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교회 이주민목회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3). 박상식, "탈북이주민 사역을 위한 융합적 교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14). 이바울, "다문화 사역을 통한 선교적 교회 모델 연구: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군포: 한세대학교 대학원, 2014). 박병대, "다문화선교를 위한 하남시 교회의 역할" (박사학위논문;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8). 박준환, "외국인근로자 선교 현황 고찰: 천안외국인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화성: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8) 김제선, "다문화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 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1). 홍종효, "농촌교회 다문화가정 목회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2011). 성창환, "한국 내 여성결혼이주자 및 자녀의 현황과 기독교 교육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천안: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2). 최경순, "다문화 선교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교육과

논문[9]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볼 때 다민족 사역과 관련하여 선교와 목회 개념으로 접근하는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실제 사례의 경우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거나 2-5개 정도의 교회를 단순 나열하여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현재 나온 논문을 통해 볼 때 구체적인 다문화 목회 유형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목회를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에 방향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논문의 연구 방법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를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형을 나누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를 각 유형별로 2-3개 정도 제시할 것이다. 필자가 선별된 각 유형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10]를 진행하면서 현장 사역의 모습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다문화 목회의 유형 제시와 교회 선정은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교회 이주민선교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해 2013년 9월 책자로 만든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보고서』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주민선교에 대해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 사역의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고찰함으로써 교회가 다문화 목회를 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할 것이며,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6. 연구 질문

- 다문화 목회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 교회사에 나타난 다문화 목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정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문상호,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 주안교회 외국인선교국 선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3). 이명재, “한국 사회 다문화 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목회적 대안”(박사학위논문;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4). 단안드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선교사역 연구: 경기도 광주시 한.필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광주: 서울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 강현주, “다문화가정선교를 위한 전문인 사역과 지역교회 역할: 수도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4).

9) 박영천,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적 기독교선교연구”(박사학위논문; 아산: 호서대학교 대학원, 2011). 이정혁, “다문화 신학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오산: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7).

10)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문화 목회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목회자가 우선적 대상이며, 다문화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내외국인)와 다문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인터뷰도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질문은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를 통해 정해진 문항에 따라 진행하다가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인터뷰는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화상 녹화 또는 음성 녹음할 예정이며, 향후 녹취록으로 그 기록을 남겨 놓을 것이다.

- 선교신학적으로 다문화 목회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유형별 장점과 단점, 한계는 무엇인가?
- 한국교회가 나아갈 다문화 목회의 구체적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7. 예상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 방법과 범위
4. 연구 질문
5. 용어 정의
6. 연구의 중요성

Ⅱ. 다문화 목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
1. 성경신학적 이해
2. 역사신학적 이해
3. 선교신학적 이해

Ⅲ.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이해
1. 한국사회의 다문화 형성에 대한 이해
1.1 한국의 다문화사회 특징
1.2 다민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3 한국사회에 나타난 다문화 현상의 문제점 이해
2.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
2.1 다문화 목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
2.2 다문화 목회에 접근하는 한국교회의 현실과 한계

Ⅳ. 다문화 목회의 유형
1. 교회 소속 사역부서 유형
2. 독립적 사역부서 유형
3. 다민족 전문교회 유형
4. 교회 부설 선교센터 유형
5. 지역 다문화지원센터 유형
6. 독립외국인교회 유형
7. 개척외국인교회 유형

8. 유학생교회 유형
9. 북한이탈주민교회 유형

Ⅴ. 연구 분석 및 발전적 제언
1. 연구 분석
2. 발전적 제언

Ⅵ. 결론
1. 연구 요약
2. 제언

8. 논문의 중요성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에 대한 유형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분적으로만 행해져 왔다. 한국사회가 국내에 거주하는 다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진지는 길게 잡아도 199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다문화 목회의 역사는 이보다 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화된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문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부분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가능한 다문화 목회의 유형을 구분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발전적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목회를 시작하려는 교회들에게는 어느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각 유형의 장단점 분석과 발전적 제안을 통해 다문화 목회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조언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본 논문의 다문화 교회의 유형 연구는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다민족 복음화에 비전 있고 헌신된 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9. 논문 작성 예상 스케줄

2018년

7월 - Chapter Ⅱ 작성, 모델적 교회 및 기관 대상 선정
8월 - Chapter Ⅲ 작성, 모델적 교회 및 기관 탐방 및 인터뷰
9월 - Chapter Ⅳ 작성, 모델적 교회 및 기관 탐방 및 인터뷰
10월 - Chapter Ⅳ 작성, 모델적 교회 및 기관 탐방 및 인터뷰
11월 - Chapter Ⅳ 작성, 모델적 교회 및 기관 탐방 및 인터뷰
12월 - Chapter Ⅴ 작성

2019년

1월 - Chapter Ⅵ 결론, Ⅰ 서론 작성

10.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용원. “다문화기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성경과 신학」62, 2012.

구병옥. “한인교회를 위한 모델로서의 다문화교회: 미국내 타민족 전도를 위한 전환 방안.”「선교와 신학」34. 2014.

_____. “환대(hospitality) 이해와 외국인 유학생 전도: ISF를 중심으로.”「개신논집」16, 2016.

구성모 외.『다문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5.

구정화 외.『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0.

김성민. “한국교회의 NGO를 통한 다문화 이주민 선교전략 연구.” 박사학위논문; 군포: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김은혜 외.『이주민 선교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김혜란, 최은영.『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2013.

문상호.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주안교회 외국인선교국 선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3.

박찬식 외.『21세기 신유목민 시대와 이주자 선교』.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8.

박흥순. “한국 사회의 이주민, 대안적 정체성 그리고 성경 해석.”「선교와 신학」20, 2007.

_____.『지역교회 다문화를 품다』. 서울: 꿈꾸는터, 2013.

손창남,『문화와 선교』. 서울: 죠이선교회, 2017.

이복수. “국내의 이주민 선교 연구.”「고신신학」14, 2012.

이장호. “도시이주민 선교의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요인들.”「선교와 신학」10, 2002.

정미경. “다문화사회를 향한 한국기독교 이주민선교의 방향과 과제.” 박사학위논문; 안양: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_____. “이주민선교를 위한 아동 교육의 선교신학적 연구.”「성경과 신학」70,

2014.

정재영. “다문화 목회 실태와 개선 방안.”「목회와 신학」통권 286, 2013.

조성돈 외,『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허은열.『다문화 사회와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국내 무슬림 공동체』.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5.

[서양문헌]

Anderson, David. *Multicultural Ministry: Finding Your Church's Unique Rhythm*. Grand Rapids: Zondervan, 2004.

Koenig, John. *New Testament Hospitality*.『환대의 신학』. 김기영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Koo, Byoung Ok. Multicultural Congregations as Models for Mono-Cultural Korean Churches: Reaching Out to Non-Korean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Wilmore: Asbury Theological Seminary, 2013.

Ortiz, Manuel. *One New People: Models for developing a Multiethnic Church*.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6.

Rah, Soong-Chan. *Many Colors: Cultural Intelligence for a Changing Church*. New Edition. Chicago: Moody Publishers, 2010.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공정한 환대』. 여금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Woo, Rodney M. *The Color of Church: A Biblical and Practical Paradigm for Multiracial Churches*. Nashville, TN: B&H Academic, 2009.

Yancey, George. *One Body, One Spirit: Principles of Successful Multiracial Churches*. Downers Grove: IVP Books, 2003.

첨부 I. 다문화 목회 목회자 대상 인터뷰 질문

1. 목사님의 연령, 성별, 소속 교단, 전체 목회 기간은?
2. 다문화 목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3. 다문화 목회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
4. 다문화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교역자, 중직자, 성도)의 반응은 어땠는가?
5. 다문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무엇인가?
6. 다문화 목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과 준비 내용은 무엇인가?
7. 다문화 목회를 위한 준비로 사역자 훈련을 했는가? 했었다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는가?
8. 다문화 목회를 위한 교회 내 양육 프로그램, 교회 밖 활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9. 지역사회와 연계 되어 진행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10. 현재 다문화 목회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목회 기간, 대상 국가와 참석인원, 예배 형태, 사역자 수, 예산, 예산 조달 방법 등)
11. 다문화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11.1. 다문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기쁨을 맛보았던 부분은 무엇인가?
12. 다문화 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사역자(내국인 현지인)를 세우는 기준과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13. 사역자를 세우는 훈련 방법은 무엇인가?
13.1. 훈련 외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
14. 다문화 목회가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15. 다문화 목회를 향한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인식은 어떠하다고 느끼는가?
16. 다문화 목회의 전망과 제언은 무엇인가?

첨부 Ⅱ. 부교역자 및 평신도 대상 인터뷰 질문

1. 신앙생활의 연수, 직분, 지금 교회 출석 기간은?
2. 거주 지역, 연령, 직업은 무엇인가?(공개가 가능하다면)
3. 지금 교회에서 다문화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의 느낌은 어땠는가?
4.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5. 다문화 사역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했는가?
   했다면 무엇을 했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하지 않았다면 무경험에서 나오는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6. 이전의 신앙생활이 다문화 사역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7.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겪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8. 다문화 사역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9. 지금 교회에서 다문화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10. 교회 내 다른 사역을 병행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역적 부담은 없는가?
11. 다문화 사역을 위해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첨부 Ⅲ. 다문화 배경 성도 대상 인터뷰 질문

1.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2. 입국년도와 나이, 성, 결혼 유무,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는가?
3. 거주지역과 직업,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4.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교회가 도움이 된 점은 무엇인가?
5. 한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는 무엇인가?
6. 교회에 다니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7.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8. 지금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가?
9. 이전에 다른 다문화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곳의 분위기는 어떠했고, 옮기게 된 특별한 이유는?
10. 지금 교회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11.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12.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았는가?
13. 신앙 훈련을 받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전도, 기도, 성경공부 등)
14. 신앙의 성숙을 위해 평소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는가?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정기적인 기도, 전도 등)
15. 다른 자국민에게 지금 교회를 소개시켜 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을 통해 접근을 했는지?
16. 자녀가 있다면 한국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겪는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가?
17.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18. 한국교회에 다문화 사역을 위해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부록2]

학위논문 작성 요령

1. 규격

㉮ 논문의 규격은 A4로 한다.

㉯ 외표지(하드커버)의 표지는 흑색(짙은 곤색) 포크로스지로 하고, 석사는 은박, 박사는 금박으로 인쇄한다.

㉰ **양면(兩面)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 50페이지가 넘지 않을 경우 단면 인쇄 한다.

㉱ 표지의 측면 세로쓰기를 제외하고, 가로쓰기(좌 → 우)를 한다.

2. 조판요령

1) 외표지(서식1)

㉮ 논문 제목과 성명은 한글(국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한자(漢字) 및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경우 성명은 영어로만 표기한다.

㉰ 부제(副題)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아래 중앙에 맞춘다.

㉱ 논문 발간년도는 학위수여일이 속한 연, 월까지 표시 한다.

예) 2022년 2월 졸업 시 : 2022년 2월

㉲ 기타 외표지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어 인쇄한다.

㉳ (겉표지, 속표지, 제출문, 인준지 서체는 명조체로 한다.)

㉴ 제목, 교명, 전공, 성명은 굵은 글씨로 한다.

2) 표지 측면(서식9)

㉮ 기재내용 : 학위논문제목, 논문 발간년도, 성명

㉯ 논문 제목은 한글(국문)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미 전달 목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한자(漢字) 및 널리 통용되는 외국어를 혼용할 수도 있다.

㉰ 논문 부제는 표기하지 않는다.(제목만 표기)

㉱ 논문 발간년도는 졸업년도를 뜻하며, 아라비아 숫자 세로로 표기한다.

㉱ 학위논문 제목, 졸업년도, 성명을 세로로 표기한다.

3) 속표지

㉮ 외표지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제출문

㉮ 논문제목 아래 두 줄을 띄우고 “지도교수 ○ ○ ○"라고 기재한다.

㉯ 두 줄을 띄고 “이 논문을 ○○학○사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이라고 기재한다.

㉰ 다시 두 줄을 띄고 논문 제출일을 기재한다. 논문 제출일은 “학사일정”의 심사용 논문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 월까지만 표시한다.

예) 논문제출기한이 2021. 11. 2일 경우 : **“2021년 11월”** 표기

㉱ 두 줄을 띄고 교명, 전공, 저자명을 기재한다.

5) 인준지

㉮ 인준지의 서명과 날인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한다.

㉯ 심사위원의 인준 증명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 논문 지도교수는 해당 지도 논문의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심사위원 중 1인이 되어, 인준지 가장 하단에 날인한다.

㉱ 논문 제출일은 “학사일정”의 심사용 논문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 월까지만 표시한다.

예) 논문제출기한이 2021. 11. 2일 경우 : **“2021년 11월”** 표기

㉲ 논문 인준일은 “학사일정”의 논문 종심일이 속하는 연, 월까지만 표시한다.

예) 논문 종심기한이 2021. 11. 22일 경우 : **“2021년 11월”** 표기

6) 본문

㉮ 본문 분량은 논문 규격을 기준으로 석사 50페이지 내외, 성경주해박사 80페이지 내외, 철학박사는 10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 본문내용 : 글자크기 11pt 정도, 줄간격 한글 260%(MS Word 1.5줄), 장평 100, 자간 0

㉰ 각주 : 글자 크기 10pt

㉱ 서체 : 함초롱바탕 혹은 바탕체

㉲ 글자색 : 흑색(수록 자료는 칼라 가능)

㉳ 용지 여백 : 위쪽 35, 아래쪽 30, 왼쪽 30, 오른쪽 30

㉴ 페이지 표시는 각 면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한다.

7) 초록

㉮ 초록은 한글로 작성한다.
㉯ 초록의 길이는 2페이지 이내로 한다.
㉰ 초록에는 제목, 전공, 이름,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 초록 하단에 논문의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어(keywords)를 5~6개 표기한다.

8) ABSTRACT
㉮ ABSTRACT는 영어로 작성한다.
㉯ 성경주해전공 논문은 ABSTRACT는 생략한다.
㉰ ABSTRACT의 길이는 2페이지 이내로 한다.
㉱ ABSTRACT에는 영어 제목, 성명, 전공, 학교명을 기재한다.
㉲ ABSTRACT 내용 하단에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핵심어(keywords)를 5~6개 표기한다.
㉳ 핵심어는 논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9) 감사의 글
생략 가능하다.

3. 제본 요령(논문제본 순서)(※반드시 순서에 따를 것)

㉮ 겉표지(서식1 참조)
㉯ 간지
㉰ 속표지(서식1 참조)
㉱ 제출문(서식2 참조)
㉲ 인준지(서식3 참조)
㉳ 초록(서식4 참조)
㉴ 감사의 글(생략가능) (서식5 참조)
㉵ 목차(내용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순)(서식6, 7 참조)
㉶ 본문
㉷ 참고문헌
㉸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
㉹ Abstract (서식8 참조)
㉺ 간지
㉻ 뒷표지

4. 논문의 번호 체계 및 활자크기

1) 논문의 번호 체계

서론과 결론을 포함한 각 장은 로마자(I, II, III, IV…) 굵은글씨로 하고, 각 장 아래 항목의 목차 번호는 십진법(1./1.1./1.1.1.)으로 표기한다. 로마자 장 제목은 중앙정렬하고, 그 아래부터는 좌측에서 시작하여 하부 항복으로 갈수록 두 칸씩 들여 쓴다. (아래 참조)

II. 존 칼빈의 제네바 혼인 개혁

1. 역사적 배경

1.1. 종교개혁의 영향(11pt)

1.1.1. 로마 가톨릭의 교회법

2) 논문의 활자크기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 각 항목의 활자크기는 다음의 [표1]과 같이 통일성을 갖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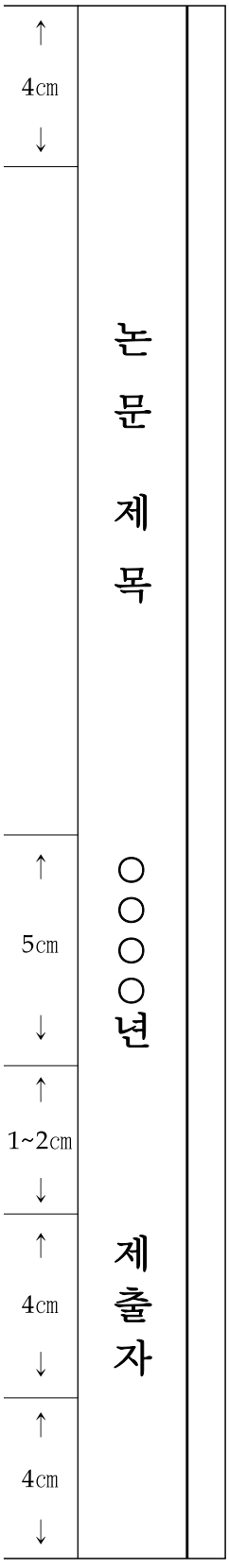
[표1] 논문의 활자크기

활자크기 / 구분	22pt	16pt	14pt	11pt
겉표지/속표지	논문제목	부제, 학교명, 전공, 성명	○○○○년, ○○월 ○○학위논문,	-
표지 측면 (세로쓰기)	-	논문제목 (필요시 크기조정 가능) 졸업년도, 성명		-
제출문	논문제목	부제, 이 논문을 ○○학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학교명, 전공, 성명	지도교수, ○○○○년 ○○월	
내표지 (인준지)	논문제목	OOO의 O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학교명	○○○○년 ○○월	-
본문	-	각론(서론, 본론, 결론), 장 제목	단위 제목	내용
초록		초록		내용
Abstract	논문제목	부제	영문 성명, 전공, 학교명	내용

논문 서식

0. 책등
1. 겉표지, 속표지
2. 제출문
3. 인준지
4. 초록
5. 감사의 글
6. 목차
7. 표목차, 그림 목차
8. 본문
9. 참고문헌
10. Abstract
11. 부록

*논문 작성시 별도 파일 참조

개신대학원대학교

[서식0] 책등(겉표지 측면)